

▣ 애도의 시간 : 김민지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국제위원회)

지금 이 순간에도 무분별한 학살의 현장에서 스러져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의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력으로 1만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꿈을 위해 진실하게 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들과 학생들,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한단 말입니까. 전쟁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운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자 죽음의 굴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혹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셀 수 없는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앞에서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자처하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잔인한 공격에 함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비극만이 남겨진 삶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가자지구의 사람들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선 우리 모두의 삶이 가자지구 피해 생존자들의 눈물과 한 맺힌 통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를 위해 동행해나가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만나며 연결되어 보다 창조적인 연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의 자비를 구하며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애도하는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1. 덩아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팔리우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픽션을 만들 듯이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픽션을 만들어서 세상의 동정심을 사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만든 말인데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고통을 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는 우리도 함께 고통스러울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점령군이 아흘리 침례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에 가까운 주민을 살해한지 곧 한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병원에 전화해 병원을 폭격하겠다며 3일에 걸쳐 협박했고, 미리 드론을 보내 경고성으로 약하게 폭격을 하기까지 했는데도, 아흘리 병원을 폭격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주장이 맞다면, 500명이나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100명 쯤 죽었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10월 7일부터 26일 사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된 모든 주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성별, 나이를 적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가자 주민들 대부분이 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내는 통계를 정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가자지구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관의 명단과 대조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 문서에서 이름과 나이를 가져와 추모식을 위한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랍어를 모르지만, 첫줄을 보시면, 나이가 많은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내려가며 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죽 이어지는 걸 우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성인인데요. 같은 성을 쓰는 일가족 친척들이 몰살당했다는 뜻입니다. 많게는 한 일가 44명이 함께 살해됐습니다. 아직 1살이 채 되지 않아 0살이라고 표기한 아기들도 많고요.

그렇게 단 20일간 살해된 사람이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됐고요.

저는 아흘리 병원이 폭격되기 20시간 전, 병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피난민 어린이들을 찍은 영상을 가끔 봅니다. 끝없는 폭격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려고 놀이치료를 하는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인데요. 그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분도 어린이들과 함께 살해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 계정에 가끔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팔리우드라서, 영상 속 아이들도, 그 영상을 만든 사람도 사실은 살아

있는 거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스라엘 점령군이 그거 봐라, 팔리우드 맞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굴더라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꼬박꼬박 이스라엘 점령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고, 군사정부를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만 따져도 50년 넘게 점령군의 지배가 계속된 거고요. 그보다 20년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학살하고 조직적으로 인종청소하며 팔레스타인 땅 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75년간의 식민지배에 더해 가자지구를 17년간 봉쇄하며 현대사에서 가장 긴 점령군의 봉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당장 휴전에 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사점령과 식민지배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점령군은 앞으로도 가자 주민들을 지금처럼 집단학살할 테니까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그동안 수도 없이 그래 왔습니다.

유니세프는 가자지구가 수 천 명의 어린이에게 무덤이 됐고, 남은 모든 이에겐 산 지옥이 됐다고 말합니다. 가자지구가 어린이 수 만 명의 무덤이 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생존자 아동들이, 그리고 모든 생존자가 더이상은 지옥에서 살아가지 않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살해된 이들을 추모하는 방식은 75년간 이어져 온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강제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 발언2.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을 습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을 투입했고 병원에 탱크까지 진입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아예 병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백린탄으로 병원들을 폭격하고 있고, 저격수를 배치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표적 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창 밖을 내다보다가 가슴을 저격 당해 의료진 바로 옆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전기와 연료를 끊고 병원의 태양광 패널을 고의로 파괴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울부짖던 수많은 신생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에 대피령을 내렸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한 달 전에 지적했듯이 중환자와 신생아들에게 병원을 떠나라는 건 사형선고입니다. 환자를 버리지 못해 많은 의료진들도 병원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역이 파괴당해 오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병원에 모여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수백 명이 모인 그 병원들을 집중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알 아흘리 병원을 폭격했을 때는 비난이 들끓자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지금은 병원을 대놓고 공격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살해하며 구급차를 폭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전(10일)부터 가자지구 보건 체계와 통신이 완전히 마비돼 사망자 숫자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폐허와 암흑 속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종 청소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인종 청소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적 만행을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하마스 시설이 있다는 게 이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미국이 편을 들어줬고, 많은 언론들이 받아썼습니다.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환자와 의료진을 공격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습격한 병원에 하마스 지휘부의 흔적은 없었고, 있던 지하터널 입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내부 문서에 드러났듯이 가자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로 내몰아 완전히 점령할 ‘기회’로 여기고 병원까지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의사들은 너무나 많은 환자와 의료진들이 죽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료인들은 이 호소에 끝까지 답을 하려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는 팔레스타인 의사들과,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온 마음과 뜻을 함께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과 같은 연대를 더욱 키우는 것만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발언3. 진영인 (숲나학교 학생 NGO Let's Peace)**

안녕하세요. 저희는 숲나학교 학생 NGO Let's Peace에서 활동 중인 진영인, 진황휘, 이성재입니다. 저희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평화에 대해 공부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알리자는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희는 무엇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이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게, 학교와 병원이 폭격에 맞아 제대로 된 교육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어린 나이에 끔찍한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교 내에서 신발을 모으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애도의 시간조차 없이 도망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전쟁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폭력만을 낳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혐오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고한 생명들만 희생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승자 없는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승자 없는 전쟁을 멈추고,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희 NGO에서 함께 읽은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의 주인공인 필리스트에게 모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한 마디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필리스트가 어머니나무에 가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4.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발언5.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발언6. 희음 (시인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발언7. 사루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활동가 / 노동당 총남도당 사무처장)

지난 15일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우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오기 대략 한달여 전인 10월 17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10개 시민사회단체와 181명의 개인참여자의 뜻을 모아 한국의 퀴어와 앨라이들의 팔레스타인 지지선언문과 함께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 항의공문을 이미 한 차례 보낸 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더불어, 핑크워싱을 앞세워 이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해당 입장문에 대해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한 달째 특별한 답신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지선언문은 발자마자 파쇄기로 직행했겠지만, 대사관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수막이 걸리자마자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수막 게첩의 효과를 대사관이 행동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의 공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강에서 바다까지’ 구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항의공문 발송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연대하는 이들이 여러 차례 설명해온 바가 있기도 하거니와,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타국의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입을 막으려 드는 행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번 현수막 행동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개 진보정당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첩했고, 그 이유 덕분에 감사하게도 노동당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지만, 대사관 일대에 걸린 20개 남짓한 현수막들은 3개 진보정당만의 현수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3개의 진보정당을 포함한 1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건 현수막이고, 이를 넘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총의가 담긴 현수막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반유대주의를 선동하고 있다는 거짓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전체가 그러하다고까지 감히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각국의 지배자들이 앞다투어 이스라엘 지지를 천명하고 있는 동안에도, 즉각 휴전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선언들이 세계 각지에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착취, 그리고 식민지배를 지속하려는 지배자들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가 평화와 해방에 있음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현수막을 치우라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욕박지를 수 있겠지만, 갈수록 커질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의 외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타국 정당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닌,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거짓 근거로 현수막 철거를 강요하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사관의 뒤에는 이스라엘 극우 정권이 있겠지만, 노동당의 뒤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다.

“!من النهر إلى البحر”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요르단 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 발언8. 민희 (플랫폼C)

<긴급행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105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단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긴급행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식민지배, 아파르트헤이트 등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일제강점기를 '일본과 조선 간의 분쟁'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팔레스타인에서도 모든 사람이 분쟁이라 부르지 말아 달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령자와 피점령자를 대등한 두 당사자로 둔갑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급행동>은 이러한 점령과 학살에 반대해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10월 16일 열린 긴급포럼 <팔레스타인은 왜 - 주류언론이 질문하지 않은 것들>이 그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170여명이 함께했고, 주류언론이 왜곡하는 팔레스타인의 실상을 알리고 이스라엘 점령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경제, 군사, 학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묵인하거나 협조해왔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 군수산업과 직접 거래하고, 팔레스타인들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정착촌과 검문소를 짓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점령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지난 10월 27일 유엔총회에서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라는 제목으로 열린 긴급 세션에서 채택된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에 한국정부는 기권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도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반대하는 많은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긴급행동>은 지난 10월 22일과 11월 4일 두 번의 집회에 각각 500여명이 참여해 이스라엘의 폭격과 학살을 규탄하였습니다. 정부, 일부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11월 4일 집회를 준비하던 중 우리는 경찰에게 외교기관 앞 행진은 불법이라며 행진부분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해당외교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휴일에는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긴급행동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부분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경찰의 부분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1월 4일 당일 경찰은 행진대열에게 행진신고를 낸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강요하며 평화로운 행진을 방해하였습니다. <긴급행동>은 1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할 것입니다. 경찰이 또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후 그 위법성을 다루고 국가손배소 및 집회방해죄 고소 등을 통해 대응하며, 목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급행동>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의 애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점령과 공격으로 숨진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신발을 보내달라는 호소에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신발을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신발이 모였습니다. 3천여 켤레의 신발들 속에, 수집장소를 제공한 <참여연대>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1월 6일 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라> 대형팻말과 팔레스타인들의 검은 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은 매일 나와서 괴롭히지만, 1인 시위 신청자들이 많아 12월까지도 이미 시위자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 <긴급행동>은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행동을 외교부 정문앞에서 하였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원에 항의하기 위해 40여명의 참여자들은 회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범죄 공모자인 미국 정부의 '피 묻은 손'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현수막 시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3일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개 진보정당 명의로 학살에 항의하는 현수막 걸기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세 당에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긴급행동은 앞서 <팔레스타인 평화행동> 덩야핑 활동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학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목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75년간 이어져 온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강제할 때 지금과 같은 학살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카이로, 테헤란, 이스탄불, 바그다드까지 중동 전역의 시민들과 런던, 글래스고, 파리, 바르셀로나 등 유럽에서도. 미국 내 유대인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홀로코스트가 재현되어선 안 된다며 "네버 어게인", "지금 당장 휴전"을 외쳤습니다. 뭄바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케이프타운, 멜버른, 온타리오, 오사카, 타이페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중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반대하며, 이를 멈추기 위한 국제적인 반전 운동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11월 26일 집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